

아시아의 원자력 인재 수요 증가에 대응

- 동남아를 비롯한 아시아에서 원자력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각국의 수주 경쟁이 치열해 지고 있음
- 한일 간에도 수주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는 한편, 부족한 원자력분야 기술자의 육성을 위한 환경조성 등에서 한일협력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아시아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임

□ 베트남의 원전 기술자 육성을 위한 경쟁이 치열

- 베트남은 2020년에 첫 번째 원전을 가동시켜, '2030년까지 모두 10기의 원전을 가동시킬 계획
 - 베트남 정부에서 추산하고 있는 건설, 보수, 운전 등 원자력 분야에서 필요한 인력은 4,400명, 관련분야의 인재 육성을 위해 경험이 풍부한 한국 등 해외에 지원을 요청
 - 원전 수출을 주도하고 있는 한국, 일본, 러시아 등은 인재 육성을 통해 원전 수주 경쟁에서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기 위해 적극 대응하고 있음
- * 제1원전은 러시아가 수주하여 2020년 가동 예정, 제2원전은 일본이 수주하여 '2021년 가동 예정

(러시아) 베트남 국영건설그룹인 송다중공사(Tổng công ty Sông Đà)는 2013년 2월 러시아의 국영 원자력기업인 로스아톰(pocatom) 자회사와 인재 파견 계약을 체결, 현재 약 80명의 베트남

교육생들이 원전 설계, 시공관리, 건축기술에 관한 교육을 받고 있음

(일본) '12년 9월 원전 사업주인 베트남 전력공사(EVN)로부터 15명의 연수생을 도카이 대학에서 수용, 2년간 원자력공학 등 기초 지식이나 원전의 보수·운전 등 실무지식을 교육

(한국) 한국전력에서 설립한 국제원자력대학원(KINGS)이 '12년 3월부터 베트남을 포함한 동남아시아 및 남아프리카의 유학생을 교육하고 있으며, '13년도 재학생은 국내인 63명, 외국인 53명으로 약 45%가 외국 유학생

□ 아시아지역에서 원전 기술자에 대한 수요 증가

- 전력 부족으로 인해 원전의 증설 수요가 확대되고 있는 아시아에서 원자력 분야의 인력 수요도 증가하기 시작
 - 아시아 전체적으로 '2020년까지 총 100기 이상의 원전이 건설될 계획이어서 관련 산업분야의 고용 확대가 기대
 - 태국은 발전량의 70%를 화력발전에 의존하고 있으며, 미얀마에서 25%의 가스를 수입하고 있으나, 만약 해외에서 가스 공급이 중단될 경우 수도권에서 블랙아웃이 발생할 가능성이 대두
 - 특정국가에 연료 의존도가 큰 나라는 리스크 분산 차원에서 원전의 증설이 필요함과 동시에 원전을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는 기술자들의 수요가 증대되는 상황
- 일본은 동일본 대지진 영향으로 대학생들이 일본 국내 원자력 관련 산업에 취업을 기피, 원자력 기술 계승이 어려워지고 있음

- 원전 기술자의 감소는 원전 수출에 장애가 되기 때문에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에 원전사고의 교훈을 활용한 국제협력이나 새로운 안전규제, 인프라 수출을 고려한 연수기관으로 ‘국제원전연수원’을 설치할 예정
- 또한 ‘아시아원자력인재육성회의’와 같은 각종 세미나 개최 등을 통해 원자력 인재나 기술의 유지 및 강화 대책을 추진

□ 시사점

- 전문적인 기술을 요하는 원자력분야의 기술자를 육성하기 위해서는 장기간 체계적인 지도와 훈련이 요구됨으로 인재 육성 환경을 정비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
- 한국은 KINGS에 재학 중인 유학생이 많아 인재 육성의 국제거점이라는 면에서 일본보다 앞서가고 있기 때문에 학교 간 교류나 협력 제안에 유리한 입장
- 일본 측은 기술 유출을 우려하고 있지만, 원전 사고를 경험한 일본이 아시아의 안전을 위해 더 적극적으로 기술자 육성에 기여해야 한다는 인식이 요구되므로 우리나라도 일본에게 인재육성을 위한 협력을 제안할 필요
- 정부 간 협력뿐만 아닌 원전 건설 회사나 민간 부문에서도 원자력 인재 육성에 대한 지원이 가능하고 한일 기업들 간에서 협력 사업을 추진할 기회가 있을 것으로 보임

<참고자료>

닛케이신문(2012.10.17, 2013.2.15, 3.5/29), 산케이신문(2013.1.4)